

박성현, LPGA 투어 3관왕

39년 만에 신인왕+상금왕+올해의 선수상 석권

박성현(24·KEB하나은행)이 39년 만에 신인왕과 올해의 선수상 상금왕을 석권하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됐다.

박성현은 20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 티뷰론 골프클럽(파 72·6556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최종전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250만 달러)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3개로 3타를 줄여, 최종합계 12언더파 276타 공동 6위를 했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신인왕은 물론 올해의 선수상, 상금왕과 함께 CME 글로벌 포인트 100만 달러 보너스 세계랭킹 1위까지 노려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박성현은 공동 6위로 대회를 마치고 상금왕을 확정지은 가운데 렉시 톰슨(미국)이 17번 홀까지 15언더파 단독 선두를 질주했다.

톰슨이 이대로 우승하면 최저타수상과 올해의 선수상은 톰슨의 차지가 되고 준우승에 머문다면 유소연(27·메디힐)과 박성현의 올해의 선수상 공동 수상 가능성이 남아 있었다.

톰슨은 마지막 18번 홀(파)에서 약 50m 파 퍼트를 남겨 놓고 있어 주요 타이틀을 싸잡아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이 홀컵을 돌아 나왔다.

통한의 보기를 한 톰슨은 14언더파 공동 선두로 돌아왔다. 뒤따르던 에리아 쭈타누간(태국)이 마지막 홀에서 극적인 버디 퍼팅을 성공시키며 짜릿한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톰슨은 공동 2위를 하면서 올해의 선수상 포인트 12점을 추가하는데 그쳤다. 6위를 한 박성현이 5점을 더해 유소



박성현(24·KEB하나은행)이 39년 만에 신인왕과 올해의 선수상, 상금왕을 석권하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됐다.

연과 나란히 162점이 되며 올해의 선수상 공동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박성현은 1978년 낸시 로페즈(미국) 이후 39년 만에 신인왕과 올해의 선수상을 물론 상금왕까지 동시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다.

박성현은 시즌 3승과 CME 글로벌 보너스 100만 달러를 손에 넣지는 못했지만 신인왕과 함께 상금왕은 물론 올해의 선수상까지 석권하고, 최저타수 부문 2위에 오르는 등 데뷔 첫 해 눈부신 성적을 거뒀다.

쭈타누간이 15언더파 273타로 우승을 차지하며 시즌 피날레를 장식했다. 쭈타누간은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한 개로 5언더파를 쳤다.

톰슨 쪽으로 승부가 기울던 차에 17번 홀(파5)에서 1타를 줄였고 역전 우승이 걸린 18번 홀에서 극적인 버디를 성공시켜 박성현과 유소연의 올해의 선수상 수상을 도왔다.

다 잡았던 우승을 놓친 톰슨은 최저타수 부문 1위에 오르며 베아트릭피를 수상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여기에 CME 글로벌 보너스 100만 달러를 획득 한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했다.

유소연은 최종전에서 공동 30위에 그쳤지만 쭈타누간의 도움으로 박성현과 함께 개인 첫 올해의 선수상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뉴시스

고진영, LPGA 출사표... "목표는 신인상"

국내 무대 통산 9승에 빛나는 고진영(22·하이브진료)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진출을 선언했다. 20일 매니저먼트사인 갤럭시아SM을 통해 'LPGA 투어는 골프를 시작할 때부터 꿈꿔왔던 무대'라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더 큰 목표를 위해 도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진영은 지난달 LPGA KEB 하나은행 챔피언십 우승으로 2018 시즌 LPGA 투어 풀스피드를 확보했다.

그동안 국내 잔류와 미국 진출을 두고 고민하던 고진영은 큰 무대 진출을 택했다.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무대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시즌 초반에는 투어에 최대한 빨리 적응하는 것에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이후 시즌 1승과 신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욕심이 나는 부문은 역시 신인상이다. "LPGA 투어에서는 신인상을 아쉽게 놓쳤는데 만약 LPGA 투어에서 신인상을 수상한다면 굉장한 기쁨"이라고 특기했다.

본격적인 미국 진출 준비는 더커피스 프레젠테이션(바이코)과 끝난 뒤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고진영은 "스윙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연습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체력 훈련에 더욱 집중해 몸 컨디션도 시즌 내내 최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뉴시스

이재성, 올해 K리그클래식 MVP 영예

최강희 '감독상' · 김민재 '영상플레이어' 수상... 전북현대, 주요 개인상 3개 싹쓸이

2017시즌 K리그 클래식(1부리그) 최고의 별은 이재성(전북)이었다.

이재성은 20일 서울 흥은동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KEB하나은행 K리그 대상 2017에서 클래식 MVP로 선정됐다.

상금은 1000만원이다.

이재성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MVP 투표에서 전체 133표 중 51.9%인 69표를 얻어 49표의 조나탄(수원)을 따돌렸다.

또 다른 후보자인 이근호(강원)는 15표를 기록했다.

프로 데뷔 4년 만에 거둔 쾌거다. 이재성은 갈비뼈 부상을 딛고 28경기 만에 나서 팀이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하는데 기여했다.



이재성은 20일 서울 흥은동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KEB하나은행 K리그 대상 2017에서 클래식 MVP로 선정됐다.

8월10도움으로 조나탄(22골3도움)에게 기록상으로는 밀렸지만 현신적인 플레이와 우승 프리미엄으로 높은 득표를 이끌어냈다.

베스트 11에서도 중앙 미드필더 한 자리를 차지했다.

이재성은 "혹시 몰라서 어제 연습을 했다"고 너스레를 떨더니 "이렇게 떨리는 건 처음이다. 이렇게 큰 상을 받아도 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모든 선수가 함께 열심히 한 노력의 결과인데 나 혼자 영광을 누리는 것 같아 죄송스럽고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최강희 감독이 계셨기에 가능한 것 같다. 내가 꽃이 되기 위해 매일 관심을 가져주고 믿어줘서 꽃길만 걷는 것 같다"면서 "내가 좋아하는 축구로 많은 성원을 받아 행복하다. 성원을

절대 잃지 않고 발전하는 선수로 거듭나겠다"고 고마워했다.

생애 한 번 뿐인 영플레이어상은 김민재(전북)에게 돌아갔다.

"괴물 신인"이라는 평가답게 133표 중 120표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수비 선수가 이 상을 받은 것은 김민재가 처음이다.

"이 상을 받으면 (김진수 형과 반을 쪼개기로 했는데 큰일났다"며 웃은 김민재는 "아구나 농구로 넘어간 축구팬들이 K리그 경기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전북 최강희 감독은 감독상의 영예

를 안았다. 부산 5번째다.

지난해 FC서울에 역전 우승을 허용하며 3년 연속 수상을 놓친 최 감독은 2년 만에 최고 시령탑으로 우뚝섰다. 전북은 주요 개인상 3개를 휩쓸었다.

최 감독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만들 어준 선수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쉽지 않은 시즌이었는데 현신하면서 희생 해줬기에 우승할 수 있었다"면서 "K리그가 축소되고 있는데 내년 챔피언스리그에서 K리그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시스

손흥민, AFC 올해의 해외파 선수상 후보 올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핫스파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올해의 해외파 선수상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다.

20일(한국시간) AFC에 따르면 손흥민은 호주 출신 애런 무이(히더즈필드), 이웃나라 일본의 가가와 신지(도르트문트)와 최종 후보 3인으로 등재됐다.

올해의 해외파 선수상은 지난 2012년 제정됐다.

유럽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시상식에 참여하지 못해 올해의 선수상을 받을 수 없게 되자 AFC가 대안으로 신설했다.

때문에 올해의 선수상에 준하는 가치를 자랑한다.

손흥민은 지난 2015년 한 차례 이 상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EPL 아시아인 최다골 돌과 등으로 여느 때보다 수상 가능성이 높다.

이승우(베로나)와 백승호(페랄라다)는 올해의 남자 유망주 선수상 후보로 뽑혀 이란의 타하 사리야티와 경쟁을 벌인다.

올해의 선수상은 우레이(중국), 오마르 크리반(시리아), 오마르 압둘라흐만(UAE)의 3파전으로 압축됐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